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www.ice.go.kr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편집인: 공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15-0092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 제2호



‘목향초 아침활동’ 황화산 걷기

사진_이예슬 교육홍보팀 주무관

2면	인천교육소식
4~5면	하루의 시작과 끝 아침식사와 잠
8~9면	교실 밖 인천교육
10~11면	학생·학부모의 시선
15면	자르는선

인천교육소식

인성교육수첩 ‘행복한 밥상 대화’ 펴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신근)은 지난 6월 1일 ‘행복한 밥상 대화’를 발간하여 관내 초등학교 49교에 보급하였다. ‘행복한 밥상 대화’는 선조들의 밥상머리교육을 본받아 식사 시간을 통해 가족 사랑과 자녀의 인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한 학부모 인성교육 자료로, 2014년 최초 개발·보급한 바 있다. 남

부교육지원청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의 참여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 2014년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가족들이 식사 전·중·후에 할 수 있는 밥상머리 대화 주제와 방법, 요리, 가족 놀이 및 체험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스케줄러가 포함된

수첩 형태로 자주 펼쳐서 가족 대화를 계획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큰 장점이다. 이 책자는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PDF파일로도 제공되고 있다.

이신근 교육장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실도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밥상”이라며 이 책자를 통해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한 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9월에 밥상머리교육에 관한 학부모, 교사 연수를 개최하고, 밥상 대화 수기를 공모하는 등 밥상머리교육 실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경희_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문화와 예술로 감성을 키워 가족 모두 행복한 삶 가꾸기”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은 5월 19일(화)에 초·중학교 학부모 3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와 예술로 마음을 Talk 톡!』연수를 실시했다.

가정과 연계된 인성교육을 위해 준비한 연수에서 시집 ‘섬진강’의 저자 김용택 시인은 ‘인문학의 기본은 사람끼리 믿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고, 성악 및 클래식 기타 공연으로 학부모들의 이성과 감성을 일깨웠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와 예술 행사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며



학교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는 행복한 북부교육을 만들 계획이다.

손경_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청소년 원탁토론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숙)은 2015년 8월 25일(화)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원탁토론회는 교육공동체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중학교 학생과 교원, 학부모 약 250명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소그룹별 입론과 상호토론이 먼저 진행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견을 모으는 21세기 타운미팅 방식의 대규모 원탁회의가 이어진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와 ‘사이버폭력예방’ 등 두 가지 토론 의제로 이해당사자의 솔직한 의견

이 실시간 취합 분석되어 의견의 선호도가 정해진다. 최종 의사결정은 학생만 참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모인 의견은 2016학년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원탁토론회 실시까지 약 200명의 참가신청 학생에게 홈페이지 사전조사를 하여 토론 의제에 대해 알리고 세부 쟁점을 도출하고 있으며, 학부모 참가자는 전화(460-6226) 또는 전자우편(jds0919@ice.go.kr)으로 신청받고 있다.

장동숙_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프렌디 아버지 교육기부단



아빠와 감동캠프

전국 유일사업인 『프렌디 아버지 교육기부단』은 서부 관내 36교, 760여명의 아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 자녀 진로교육, 토요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학교 참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버지 학교 참여’ 부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부현동초는 ‘아빠 교통대’ 활동이 주 3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백석초는 학교 주변 텃밭과 그 수확물을 이용한 ‘토요 주말농장’, ‘밥상머리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명현중은 계양장기파출소와 연계하여 주 2회 학교 주변을 야간에 순찰하는 ‘아빠 패트롤’과 아빠들의 직업군을 활용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은 아버지 교육기부단에 대한 야간 컨설팅을 진행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였다. 11월에는 아버지 학교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아버지 학교참여 콘테스트]를 개최 예정이다.

조수정_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사

작은 학교! 큰 교육과정! 강화 갑비고차 두레교육과정



교동지구 공동체육대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은 작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4가지 영역(작은 학교, 도시학교, 지역사회, 자유학기제)의 『갑비고차 두레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소규모 학교 20개를 8지구로 묶어서 진행하는 ‘작은 학교 인성 두레 교

육과정’은 지구별 공동 교육활동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화 지역의 역사 및 자연환경·문화예술 체험과 체육학습, 교사연수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갑비고차는 강화의 옛 지명이며 강화교육지원청은 학습선택권의 확대와 풍부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두레교육과정을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다.

김현주_강화교육지원청 장학사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이나 독감 등의 감염병은 학교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학생 건강 증진과 관련된 한 부분으로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다.

감염병의 종류와 진단 시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주요 감염병〉

질병	발생하는 시기 나이	주요 증상	비고
수두	5~6월/11~1월 4~6세/15세미만	발열, 피로감, 피부발진, 수포	
유행성 이하선염	5~7월 6~17세	발열, 두통, 근육통, 이하선 부종	
홍역	봄철 5~10세	발열, 기침, 콧물, 코플릭반점, 발진	
풍진	초봄/늦겨울 젊은 성인	구진성 발진, 림프절이 부어오름, 미열 등 감기증상	
인플루엔자	봄/겨울 전 연령	발열, 인후와 편도가 빨갛게 부어오름, 림프절이 커짐	A형 독감 등
백일해	봄/가을 4개월 미만	감기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뇌수막염	바이러스: 여름, 4~14세 세균: 연중	발열, 두통, 구토, 의식저하	
수족구병	여름 영유아	발열, 손발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결핵	연중 전연령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세균성이질	연중 0~4세/60세이상	발열, 복통, 구토, 잔변감을 동반한 설사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5~6월(장티푸스) 5~8월(파리티푸스) 영유아, 30대	고열, 복통, 두통, 구토, 설사→변비	
콜레라	6~9월 전 연령	물설사, 복통, 구토, 팔다리 저림	
장출혈성 대장균	6~9월 전 연령	복통, 물설사(피가 섞인 설사 가능), 발열, 구토→열내림	
유행성 각 · 결막염	연중 전연령	충혈, 눈물, 눈곱, 눈부심, 어린이에게는 두통, 오한, 인후통, 설사 등이 동반되기도 함	
급성출혈성 결막염	연중 전 연령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등	

1. 등교중지 감염병(전염병)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등교중지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됩니다. 주요 감염병은 <오른쪽 표>와 같으며 메르스처럼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서 대규모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 산하 모든 교육기관에 등교중지 등이 적용되며 심각할 경우 확산을 대비하여 휴업이나 휴교 등의 조치까지 취해집니다.

2. 병원에서 감염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에 법정 감염병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하시면 등교중지 처리됩니다. 다만 등교중지 기간 이후 학교에 갈 때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내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단 법정 감염병이 아닌 감염성이 강한 지정 감염병인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 A형 독감 같은 경우에는 타미플루 약 이름이 쓰인 처방전 등을 학교에 내시면 됩니다.

3. 출석인정 결석은 무엇을 말하나요?

출석인정결석이란 실제로 출석을 하지는 않으나 결석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진, 폭우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학교를 대표한 경기나 대회 등에 참가한 경우, 가정 내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을 못할 때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움말 : 권상순_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2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하루의 시작과 끝 아침식사와 잠

뇌를 깨우는 필수조건 ‘잠’

김대균_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자정이 넘어 책상에 앉아 책은 펴놓고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핑, SNS, 게임 등을 하느라 정작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 이럴 때 많은 부모님들이 차라리 잠이나 일찍 자라며 체념하듯 말해봤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른 등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잠을 깨우는 ‘전쟁’을 매일같이 치르고 있는 현실이다.

입시를 앞두고 ‘4당 5락’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학습량이 많은 아이들에게 ‘잠’은 줄일수록 좋은 것이고 공부하기 싫으면 차라리 잠이나 자라는 충고를 보면 적어도 학생들에게 있어 ‘잠’은 필요악처럼 대우받고 있는 셈이다.

그럼 잠은 학습을 쉬는 시간이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잠을 줄여야만 하는 걸까?

뇌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늘어감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잠’에 대한 이런 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부모님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학습능력에 있어 수면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뇌의 활동을 보여주는 뇌파검사를 보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대략 90분마다 뇌 활동이 4단계의 주기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단계가 REM(Rapid Eye Movement) 수면 즉, 안구가 움직이는 수면단계로 ‘꿈’을 꾸는 단계이다. REM 수면 중에는 학습 내용을 장기기

억에 보낼 것과 버릴 것을 정리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수면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REM 수면상태에 더 많이 머물게 되는데 잠이 들어 첫 90분 동안에는 REM 수면단계가 약 10분으로 짧지만 수면시간이 길어질수록 REM 수면단계의 비중이 늘어 수면 8시간째에는 REM 수면단계가 거의 1시간으로 늘게 된다.

“
따라서 수면시간이 충분할 수록 전날 학습한 내용이 정리되고 장기기억으로 저장되는 양이 늘어나게 된다.
”

이러한 수면의 구조상 평일에 잠을 줄이고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잘 경우 1주일 동안의 총 수면시간은 같겠지만 수면의 질은 다를 수밖에 없다. 수면이 부족한 경우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첫 번째 신호는 감정(특히 ‘화’)조절의 어려움이다. 불안, 걱정, 혼란스러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지속 등이 잠이 부족할 경우 심해지게 된다.

일부 실험연구에 따르면 잠을 전혀 자지 않은(밤새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청소년의 경우 집중력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수면과 관련된 신체변화를 잘 이해하여 충분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학습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충분한 수면시간뿐 아니라 학습능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청소년기의 변화는 잠이 들고 깨는 시간의 변화이다.

다수의 생물학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양이 13세 무렵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17~19세에 정점을 이루게 되며 이 영향으로 10대 청소년들의 24시간 생체주기가 중학생이 되는 무렵부터 큰 변화를 하게 된다.

“
수면과 성장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 증가로 인해 청소년기의 생체시계는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고 아침에 더 오래자야 한다.
”

5면에 계속

Tip. 숙면을 위한 조언

- 오후 4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는다.
- 빛에 의해 뇌가 자극되므로 취침 직전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잠들기 전에 액션이나 공포 장르의 영화를 보거나 추리소설을 읽지 않는다.
- 취침 직전에는 운동을 피한다.
-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고(1시간 이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2시간 이내)

하루의 시작과 끝 아침식사와 잠



4면에 이어

이러한 수면-각성주기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몸이 '아직 피곤하지 않아'라고 외치기 때문에 바로 잠을 잘 수 없게 된다. 잠자리에 들어 10분이 지나도 잠을 자지 못한다면 아마도 생체시계가 잠잘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고 이른 시간에 아이들을 깨워 수업에 참여하게 할 경우 대다수 아이들의 1교시 수업은 집중하지 못하는 비능률적인 수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학습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적정 수면시간은 8~9시간이다.

9시 이전에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드문 유럽과 달리 8시 이전에 대부분의 고등학교 수업이 시작되는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수업 시작 시간 즉 수면시간과 학습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2월 발표된 미네소타대학교의 교육학자인 카일라 왈스트롬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수업 시작시간을 8:30 이후로 변경한 후 학생들의 수학, 영어, 과학 그리고 사회과목의 성적이 모두 향상되었다.

2012년에 발표된 다른 연구보고에서도 잠을 좀 더 잘 수 있도록 수업 시작 시간을 늦춘 경우 수학과 읽기 과목에서의 성적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침 기상 시간을 30분만 늦춰도 학습능력의 향상뿐 아니라 집중력이 향상되고 우울감을 감소시킨다는 실증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적어도 8시간의 잠을 잘 수 있도록만 들어주는 것이다.

2014년 8월 이러한 과학적 근거들을 기반으로 미국소아과학회에서는 중, 고등학교의 수업 시작 시간을 8:30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잠을 자고 깨는 시간이 뒤로 2시간 정도 옮겨지는 청소년들의 생체리듬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권고안의 요지이다. 권고안에는 이뿐 아니라 부족한 수면시간이 과체중,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잠'은 우리의 몸에 휴식을 주는 시간이며 동시에 우리의 뇌를 다시 깨우는 시간이다.

충분한 수면은 집중력을 높인다. 좋은 성적의 관건은 공부시간이 아니라 집중력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에게 잠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보면 좋겠다.

숙면 후 아침 식사 간편 조리법

항상 바쁜 아침이지만 먹는 것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여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펴낸 '행복한 아침밥상'에서 골라본 간편 요리를 소개합니다. 더 많은 요리는 쌀박물관(<http://www.rice-museum.com>)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 장조림주먹밥



[1인분 재료]

장조림 국물 포함 50g,
현미밥 1공기, 달걀 1개, 쪽파 1큰술

1. 장조림은 전자레인지에 30초~1분 정도 돌려 데우고,
2. 장조림 고기를 쪽쪽 찢어 현미밥에 국물과 함께 넣어 비비고,
3. 달걀 팬에 식용유(1/2큰술)를 두르고 달걀을 넣어 반숙으로 프라이를 하고,
4. 장조림에 비빈 밥을 그릇에 담고 달걀프라이와 송송 썬 쪽파를 올려 마무리.

▶ 한입 김쌈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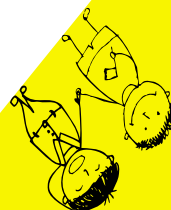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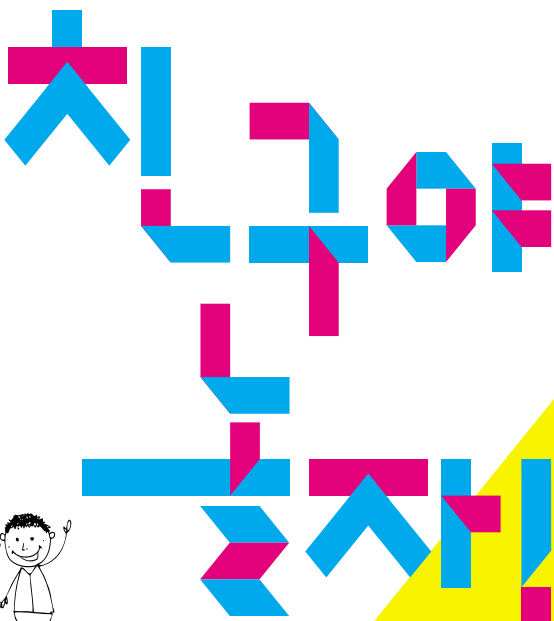


[2인분 재료]

사각어묵(한장, 80g), 단무지(40g),
쌀밥(2공기), 구운 김(2장)

1. 사각어묵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 물기를 없앤 뒤 잘게 다지고,
2. 냄비에 참기름(1/2 작은술)을 두르고 사각어묵을 넣어 2~3분간 볶다가 고추장(1작은술)과 쌀조청(1/2작은술)을 넣어 볶은 뒤 통깨(1작은술)를 뿌리고,
3. 단무지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닦아 잘게 다진 뒤 면포에 감싸 물기를 꼭 짜고,
4. 뜨거운 쌀밥에 볶은 사각어묵과 다진 단무지를 넣어 버무리고,
5. 구운 김을 적당히 잘라 도마에 놓고 비빔밥을 한 숟가락 올려 돌돌 말아 마무리.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 UN아동권리협약 제31조



어린이 놀이현장

을 검색해보세요!

어린이 놀이현장 (2015년 5월 4일 제정 · 선포)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 ▶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 ▶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 ▶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 ▶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 ▶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살아있는 교육

중2 담임의 **전통 우동**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기

송주미_인천공향중학교 교사

2014년 갓가지 문제가 벌어지는 중2 담임으로 배정받으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평화적인 움직임만이 학생들의 진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나씩 실천해 보았다.

첫 번째, 교사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의 진정한 소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 회복적 생활교육은 진정한 내면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 중 비폭력 대화를 학생들에게 간단히 연수한 후, 학생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비폭력 대화를 시도해보았다.

비폭력 대화는 ‘관찰-느낌-욕구-부탁’의 순서로 말하고 듣는 소통 방식인데, 처음 배우고 적용할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어려운 듯하지만, 이것을 생활 속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삶이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 년에 4차례 있는 학급 단합대회 중 한 번은 비폭력 대화 강사님들을 모셔 2시간 정도 워크숍을 진행했다. 자꾸 말을 시킨다면서 거부감을 보이던 남학생 몇 명을 제외하고는 많은 학생들이 비폭력 대화를 좋아하였고, 장난처럼 농담처럼 비폭력 대화를 사용하게 되었다. 어느 날, 운동장에 모두 나가 서 있는데, 한 여학생이 자기를 밀치는 남학생을 향해 ‘놀다가 너도 모르게 나를 밀치는 건 알겠지만, 자꾸 나를 치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 조심해줄래?’ 하니 남학생이 씩 웃으며, ‘어, 미안. 알았어.’라고 한다. 중2학생들은 모든 대화가 일단 욕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많은 발전이었다.

두 번째, 공동체성은 상대방의 진심을 볼 때 길러진다.

- 회복적 생활교육은 질문하고 답하는 서클 대화를 통해 공동체성을 기르도록 한다.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면 강압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잘잘못을 따져 벌을 내리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이러한 강압적 방법은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어 결국 힘의 논리에 빠져들게 만든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강압적인 지시보다 질문하고 답하는 서클 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공동체성을 기르게 한다.

학급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건들은 학급 전체가 ‘ㄷ’자로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 일로 인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어떻게 피해와 어려움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묻고, 피해를 받은 학생에게는 ‘그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 일 이후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학생들이 답하기 시작하니, 학급 내에서 응축되어 있던 많은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지 않고 서로 커다란 분노를 주고 받으며 가해와 피해가 엉켜 있었다. 자신을 ‘까오킹’으로 놀리는 것이 너무 힘든 남학생. 남학생의 거들먹거리는 행동과 친구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너무 싫은 여학생. 남학생이 여학생을 놀려 화가 난 여학생들. 학생들의 투박한 언어를 평화적으로 다듬어(비폭력 대화의 느낌과 욕구 단어로) 상대방에게 들려주고 그 아래에 있는 근본적인 소망을 서로에게 들려주었더니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해당 남학생에게 먼저 사과의 말을 하도록 했더니, 학급 전체의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과의 말이 아주 간단한 사과의 말이었는데도 상대 여학생들이 마음을 풀어 주었다.

이 서클대화 덕분에 학급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더 큰 문제로 번져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관계도 해치지 않고 학급에서 모두 다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드는 마술 같은 것이다.

〈학급 전체 'ㄷ'자 문제해결 서클〉



〈소수 문제해결 서클〉



세 번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각자의 윤리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 회복적 생활교육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자발적 경계세우기가 필수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 다른 선생님들에게 많이 받은 질문들이 ‘학생들을 존중하는 대화를 사용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주장만 한다’, ‘내가 학생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가 너무 힘들다’, ‘학급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해졌다’ 등이다. 나 스스로도 가장 고민인 부분이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 완벽한 해답을 해 드리기는 힘들지만, 작년 담임 반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설정했던 학급의 방향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학급에서 지켜야 할 가치!!

- 하나, 우리는 서로간의 이해와 소통으로 협동한다.
- 하나, 우리는 타오르는 장작처럼 친구를 배려하고, 우리 반을 아낀다.
- 하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

학급의 방향을 정해 놓으니 학급에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행동인지 반성할 수 있었고, 문제해결 서클을 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아직 많은 문제 행동들을 일으키지만, 생각하는 법과 함께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좋은 점은, 담임으로서의 부담이 확실히 적어진다는 것이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은 담임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친구들이 속마음과 피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학생들의 형편과 마음이 이해가 되기에 한 명 한 명이 애뜻해진다. 학생들도 교사로서의 내 입장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담임 선생님도 소중하게 생각해주시기에 요즘 담임노릇이 참 할 맛 난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시작은
“모이고, 둘러 앉아,
진솔하게 말하고,
깊이 듣기부터”이다.

옆 동네 소개



혁신학교 학부모가 말하는 혁신학교 이야기

박은진_전 흥덕고 학부모

자녀의 행복은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진학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시기가 다가오면 고민이 더욱 깊어집니다. 단순히 하나의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을 위한 시작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혁신학교의 학부모도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걱정은 더 커집니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학교 생활이 도리어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을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혁신학교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반학교 학부모처럼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뒷바라지만 집중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전학을 계획하거나, 졸업 후 중·고교는 일반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학교는 입시에서 결코 불리한 곳이 아닙니다. 혁신학교의 교과과정과 수업방식은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고, 고민을 나누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 개개인의 배움이 더 깊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모둠수업과 조별과제를 통해 협동과 배려는 물론 소통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폭을 넓혀가는 교육활동의 결과는 입시에도 분명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 아이는 혁신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과과정과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본인의 진로를 결정했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학부모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올 해 초 첫 졸업생을 배출한 혁신고인 삼각산고의 경우 306명 가운데 4년제 대학에 79명, 전문대 89명이 모두 희망 전공분야로 합격했다. 김정안 삼각산고 혁신기획부장은 “전체 지원자 중 80%가 입학사정관제로 들어갔다. 학교가 강북에 있어서 강남에 있는 학교나 특목고랑 비교하면 정시합격률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 흥덕고는 작년의 경우 졸업생 116명 중 112명이 대학에 입학했고 올해는 졸업생 225명 중 157명이 대학에 들어갔다. 보통 혁신학교는 초·중학교는 선호하지만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 때문에 망설이는 학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등학교도 혁신학교를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길러진 아이의 창의력도 아깝고 갑자기 일반학교에 가서 지식만 따지는 지필고사를 보면 혼란이 올 것을 우려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혁신학교에 다니는 게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다.

이렇게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진 이유는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고등학교의 수가 적어 주위에서 쉽게 혁신학교 졸업생이나 학부

모들의 경험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의 생각을 돌이켜봅니다. 분명 모든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이 자녀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올해 이른바 SKY라고 불리는 대학 중 한 곳의 졸업식장에 “○○ 졸업하면 뭐하냐? 백수인데.”라는 현수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학이 더 이상 스펙이나 취업준비기관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은 80%라고 합니다. 이제 대학입시는 ‘좋은 대학 보내기 경쟁’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배울 수 있는 ‘진로 설계의 수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혁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혁신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대해 갈등하고 불안을 느끼거나, 입시에 불리하다는 편견과 오해 때문에 혁신학교 선택을 주저하고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학부모들께 제 경험이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학년도 남인천중고등학교 졸업식
만학의 꿈을 이룬 어머니들



세월호 추모행사를 마친 신월초 2학년 3반 복도 창



날 행사



2015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축구부 우승한 가림초 결승전



2015년 대인고 체육대회 1학년 단체 줄넘기



아침 산책을 마친 상정중학교 1학년 아이들과 선생님



스승의날 기념 이벤트 당선작 '김충현 학생이 그린 선생님'

SCHOOL

시선 | 학생기자단

나비의 자유로운 날갯짓을 바라며



6월 3일, 점심시간 부개고등학교에서는 이색 동아리 NABI(나비)의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위안부를 기억해주세요’라는 문구로 학생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며 시작한 이번 행사는 위안부에 대해 알리고 후원하기 위하여 준비됐다.

구령대에서 동아리 부원들이 위안부를 비롯한 여성 인권과 관련 직접 제작한 피켓을 들고 큰

목소리를 내어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 정부의 아베 총리에게 진실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는 내용의 엽서 쓰기와 위안부 피해자이신 할머니들과 함께 하겠다는 응원을 담은 엽서쓰기가 진행됐다. 이날 사용한 동아리 부원인 이은경 학생이 디자인한 것으로 정성과 노력이 더욱 돋보였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 역사관 건립에 수익금을 사용하는 ‘희움’이라는 단체의 의식팔찌 공동구매 행사도 진행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동아리 NABI는 위안부에 대해서 모르던 학생들과 알지만 관심이 없던 학생들에게 위안부에 대해 자세히 알림으로써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입을 모아 소망했다. 동아리 이름인 NABI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모든 여성이 차별과 억압,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갯짓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이다.

또한, 6월 5일 동아리 NABI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 운동도 하였다.

김수진_부개고 학생기자

No mercy, MERS

한국에서 수원, 평택을 통해 감염되기 시작한 메르스는 현재 전북, 대전, 전남, 세종, 강남 그리고 경기도까지 퍼져나가 있는 추세이다. 인천시는 아직까지 중증호흡기증후군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각종 행사와 축제, 다수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폐쇄 여부, 지역 학교 및 유치원 휴교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초반 높은 연령층의 감염자가 대부분이었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메르스가 잘 감염되지 않는다는 정보와는 다르게 현재 의료자와 보호자 환자가 늘면서 메르스의 감염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건강한 환자 사례 역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메르스 감염환자는 150명 사망자는 16명 격리해제수는 3,122명으로 밝혀졌다. (2015년 6월 15일 기준)

이렇게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메르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 않은 이 때에 메르스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메르스 예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메르스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첫째,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 둘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만지지 않기. 셋째,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마지막으로 발열, 기침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 등이다.

메르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몇몇 학생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군은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데, 한국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하였다. 또 다른 학생 B군에게는 스스로 메르스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 “건강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는 초기 정보와는 달리, 최근에는 건강한 30대 ~ 40대 감염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 10대 감염자도 나타났고, 나도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걸리지 않을 것이라 확실히 단정 짓지 못하겠다”라고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예방책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예방책 중 하나인 마스크 착용을 하고 계시냐는 질문에 B군은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하지만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고 C군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착용하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보면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말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메르스의 예방책 역시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혜인, 윤지민, 권다인_인천국제고 학생기자

화합과 소통의 장 ‘연수여고 체육대회’



1학년 다문화 행진



2학년 창작댄스



응원하는 모습

지난 5월 14일 목요일, 연수여자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열렸다.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모두 운동장에 모여 다양한 종목들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식전에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체육대회 종목에는 줄다리기, 8자 줄넘기, 단체줄넘기, 1학년 다문화 행진, 2학년 창작댄스, 이어달리기, 사제 간 2인 3각 경기 등이 있었다. 각 반 친구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서로 협동하며 경기를 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특히 자신의 반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2학년은 1학년을, 1학년은 2학년을 서로 아낌없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1학년 다문화 행진은 연수여고가 국제화 정책 추진학교라는 특성을 살린 종목이었다. 각 반마다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에 맞춰 의상과 소품들을 준비하여 돌아가며 퍼레이드를 선보이는 것이다. 각자 나라의 특색에 맞춰 많은 것을 준비한 덕분에 볼거리가 풍성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난 후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2학년 학생들의 창작댄스는 소녀시대 ‘힙내!’에 맞춰 각 반 별로 안무를 창작해서 선보였는데, 일주일도 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로 굉장한 호흡을 자랑했다. 햇빛이 짙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참여하였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동문과 선후배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열렸고, 시험이 끝난 후 굳었던 몸을 풀고, 쌓였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 보내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승은_연수여고 학생기자

원당초등학교 작은 음악회

원당초등학교의 원당윈드오케스트라의 작은음악회가 원당지구 동문아파트 안에서 지난 5월 27일 저녁6시부터 8시

까지 2부로 공연했다. 학부모 및 인근 주민의 열렬한 호응 아래 작년에 이어 원당지구 아파트에서 공연하였다.

재학생 50여명과 졸업생 20여명까지 참여한 이번 공연을 통해 원당윈드오케스트라는 지역 사회의 자랑으로 자리 잡

았다는 평이다.

신정혜_학부모기자



‘갱이부리말 아이들’을 활용한 행복배움학교의 온작품읽기



6월 3일 수요일 명현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과 ‘갱이부리말 아이들’의 저자 김중미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김중미 작가는 가난했지만 자유롭고 즐겁게 놀았던 어린 시절이 자양분이 되어 지금의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어린이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고 성실히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학생들이 메모지에 쓴 질문들을 골라 답변해 주었다. 강연 끝에는 5학년 학생들이 수업한 ‘갱이부리말 아이들’ 책에 작가가 싸인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명현초 5학년 교사들이 국어, 도덕, 사회, 창체 교과 일부 단원들을 통합·재구성하여 ‘갱이부리말 아이들’ 한 권의 책을 다 읽으며 배우는 ‘온작품읽기’ 수업의 마지막 과정으로 마련되었다.

이 주제 수업은 완전한 책 읽기로 시작하여 책 내용으로 노래 만들어 부르기, 등장인물의 생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독백극, 워크북 활용한 글쓰기, 시대적 배경이 된 인천을 엿볼 수 있는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5학년 이희인 선생님은 “(온작품읽기는) 여러 교과가 연계되어 이어진 수업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재미있어했다. 또 학년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모여 더 좋은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성취기준에 알맞은 작품을 미리 선정하여 온작품읽기 수업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5학년 정혜린 학생은 “가난한 아이들의 얘기를 쓰시는 분 같고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아는 분 같다”라고 말했다. 남승민 학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다. 싸인 받는 것이 좋았다 제 목표가 그거니까요”라고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갱이부리말 아이들’이 학생들에게 배움과 추억을 한꺼번에 안겨 주었다. 배움이 삶 안에 들어오는 수업, 미래 주역들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

장명란_학부모기자



구월서초 등갯길 콘서트 시작



지난 6월 3일 구월서초등학교의 아침 등갯길은 경쾌했다.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플루트 연주와 리코더 연주소리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아침햇살처럼 밝았다.

지난주 운동장에 스탠드 콘서트 전용무대를 설치한 구월서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예술발표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

편으로 매주 수요일 『등갯길 콘서트』를 운영한다.

학생들의 등교시간(8:20~40)에 운영하며, 학부모와 함께 참여도 가능하다. ‘등갯길 콘서트’는 악기 연주 뿐 아니라 재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혜진_학부모기자

이야기가 있는 여행

강화도로 떠나는 광복 70년의 기억!

한반도 역사와 맥을 함께한 강화도 그리고 2015년 7~8월의 강화도 역사 여행!

강화도에는 한반도의 역사를 닮은 많은 역사유적들이 있다. 옛 고대인들의 건축물인 고인돌을 시작으로 삼국시대 불교사를 엿볼 수 있는 전등사와 고려산 다섯 개의 절, 몽골제국의 침략 시기 한반도를 살필 수 있는 고려궁지와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무신과 그 아래 문신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삼별초와 이규보의 묘, 그리고 남한지역에서 보기 드문 고려의 왕릉(가릉, 곤릉, 석릉, 홍릉),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꽃인 팔만대장경의 조판지 선원사지와 훈맹정음, 성리학의 첫 발이 되었던 교동향교와 연산군 유배지, 조선의 양명학인 강화학, 북벌을 준비하던 강화성, 세도정치와 철종(용흥궁)·병인양요(덕진진)와 신미양요(광성보) 그리고 초지진(운요호)에서 있었던 외세 침략의 역사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연무당 옛터, 다양한 종교의 성지였던 강화도. 강화도에서 만나는 유적과 유물은 찾는 이들을 향해 많은 이야기를 뿜어내고 있다.

2015년! 이 해를 우리는 ‘광복 70년’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2015년의 강화도 역사 여행은 ‘광복 70년’의 의미를 조금 더 실어야겠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혹은 우리 역사교육에서 많이 다루어진 것 보다는 조금 더 ‘광복 70년’의 의미를 살피는 강화도 이야기를 이 글 안에 담아야겠다. 아니 그곳을 찾아 강화도 역사 여행을 잠깐이라도 맛보는 것은 어떨까? 공간을 넘어 시간을 좇아 강화도의 광복 70년을 걸어보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연무당 옛터

강화도 조약은 역사교과서에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며 불평등조약”이라고 서술되고 있다. 기존의 동아시아적 외교 질서를 넘어 국가 간 대등한 격을 가지고 체결되었기에 근

대적 조약이라 불리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불평등하였고 이후 일제의 식민지배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침략의 발판이 된 것임은 분명하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미국인 페리의 무력시위에 놀라 개항을 했던 것처럼, 또 그 과정에서 연안측량권과 치외법권(영사재판권)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일본이 겪었던 불평등성을 조선의 개항에 적용시킨 것이다. 공존과 공영을 위한 외교관계가 아니었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조약이 아니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의 발판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 식민지배와 분단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게 했던 조약이었다. 지금은 연무당의 흔적이 그 터로만 남아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연무당이라는 공간은 광복 70년을 기념할 때 반대로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 과정의 첫발을 살피는 장소가 될 것이다.

백범 김구와 강화사람 김주경

백범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을 죽인 죄목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때 그를 구명하기 위해 힘쓴 사람이 강화 사람 김주경이었다. 김주경은 당시 법무대신이었던 한규설 등 고위관료를 통해 김구의 구명운동을 도모했으나 일본의 압력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백범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구명운동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김주경은 백범에게 탈옥을 권하였다. 이후 백범은 탈옥하여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 자신을 도왔던 김주경을 찾아 강화로 왔으나 김주경은 만나지 못하고 그의 동생 김진경의 집에 머물면서 3개월 정도 강화의 아이들에게 한학을 가르쳤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해방 후 1947년에 김주경을 찾기위해 다시 강화를 방문하여 기념촬영을 하였는데 이때의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다.

김구 구명운동 실패 후 김주경은 국내외를 떠돌아 다니며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지만 끝내 고향인 강화도로 돌아오지 못했다.

강화 3.1 만세운동 기념비

한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했던 강화에서도 3.1운동은 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역동적으로 일어났다.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시작한 3.1운동이 도시를 거쳐



농촌에까지 이어져오는 가운데 강화의 3.1 만세운동에는 24,000명이 참가하였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열린 3.1 만세운동 가운데 경남 진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만세운동이었다. 발생한 시점과 거주 인구를 생각하면 그 규모와 조직의 역동성은 대단한 것이다.

서울에서 있었던 3.1운동의 소식이 강화 청년에 의해 강화에 전해진 것은 3월 10일 이었다. 이후 강화지역 3.1 만세 시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강화읍의 장날이 2, 7일이었기에 자연스럽게 3월 17일로 정해졌다. 3월 17일 미리 준비한 선언문을 뿌리며 여기 저기서 ‘만세’ 선창이 일어나고, 이에 호응하는 강화 사람들의 만세 소리가 장터를 넘어 강화읍 전역에 퍼져나갔다. 이날 장터 만세시위에는 만여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시골 군단위 지역에서 만여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다. 이후 강화읍의 만세 시위는 각 면단위 장터를 중심으로 퍼져 한 달여 동안 지속되었다고 전한다.



‘평화’라는 이름의 전망대 “강화 평화 전망대”

우리나라에는 북녘과 경계를 맞닿은 곳에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한 전망대가 많이 있다. 하지만 ‘평화’라는 이름을 붙인 전망대

보다는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전망대가 더 많다. ‘통일’이라는 이름이 형식이라면, ‘평화’라는 이름은 내용이다. 통일전망대 일색이던 전망대 이름에 ‘평화’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서 강화의 평화전망대는 더 새롭게 느껴진다.

지금까지 ‘평화’라는 이름의 전망대는 강화와 철원에서 보인다. 그러나 인공의 경계선인 철책으로 무성한 철원과 자연의 하나인 강이 더 큰 경계선이 되는 강화 평화전망대의 느낌은 사뭇 다르다. 철원의 평화전망대가 분단의 현실을 느끼게 하는 곳이라면 강화의 평화전망대는 분단세대의 우리에게 단 한번도 보지 못했던 분단 이전 혹은 분단을 극복한 후의 이웃 같은 북녘 땅을 상상하기에 더 유리한 풍경이다. 다른 곳의 전망대처럼 강화 평화전망대도 철책이 앞을 가로지르기는 하지만 그다지 시야를 크게 막지는 않아서 북녘 땅을 차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강화평화전망대에 올라서면 몇 가지 생각들이 머리위로 떠 오른다. 강 하나로 확연히 구분되는 삶과 철책으로 구분되는 각각의 삶은 서로 다를 것이다. 강을 경계로 만나는 두 지역은 서로 닮은 점도 다른 점도 함께 있을 터인데, 철책으로 갈라진 두 지역은 닮은 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아 보인다.

서로의 발이 맺어주는 여행! 그리고 발로 찾는 광복 70년의 강화 역사 기행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가진 다섯 감각 중에서 제일 둔하지만 가장 오래 기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주관적 경험으로 다르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감각(촉각)이 가장 오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훌륭한 경치보다 몸과 발이 고생했던 기억이 오래 남았다. 그러면서 몸의 무게를 고스란히 지탱하고 있는 발은 우리 몸이 가진 최고의 기억공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내 발과 많이 닮은 내 가족의 발이 맺어주는 여행은 가장 오래 기억되는 여행을 만들어 줄 것이다. 광복 70년의 기억을 맞이해서 강화도로 역사기행을 떠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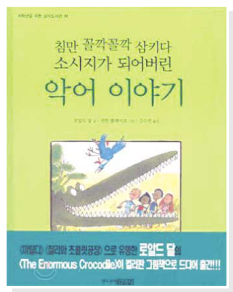
최보길_산마을고등학교 교사
(사진 출처 최보길 저 ‘강화도의 기억을 걷다’)

먼저 읽고 재미있어 소개하는 책



〈책소개〉

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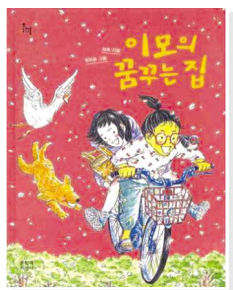


침만 푹푹 찜키다 소시지가 되어버린 악어 이야기

(로알드 달 / 주니어김영사)

어린애 고기를 좋아하는 악어가 있다고?
물고기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많은 아프리카 악어 ‘침꿀깍’. 침꿀깍악어는 어린애 고기를 먹기 위해 아이들이 있는 마을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을로 가는 길에 만난 숲의 친구들, 코끼리·원숭이·새에게 특별하고 기가 막히게 맛있는 점심을 먹을 거라고 자랑을 늘어놓는데... 악어에게 잡혀 먹을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구해 줄 방법은 없을까요?
대담하고 발칙한 상상력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로알드 달의 그림 동화.

- 인천사서교사협의회에서 먼저 읽었습니다.



이모의 꿈꾸는 집

(정욱 / 문학과지성사)

이모의 꿈꾸는 집으로 놀러오세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행복한 꿈꾸는 캠프 이야기.
엄마의 주문대로 특목고 입학-서울대- 의사 또는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 진진은 갑작스럽게 엄마가 신청한 꿈꾸는 캠프에 참가합니다. ‘이모’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의 집에서 진행되는 캠프는 일정도 없습니다. 그저 눈 뜨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자고! 엄마는 이런 캠프를 왜 신청했을까요?
혼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모범생 진진이 이모의 꿈꾸는 집에서 풍, 어기, 덩치를 만나면서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꿈을 꾸는 것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

성인



내 마음을 만지다

(이봉희 / 생각속의 집)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그 상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마음이 성숙해 지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 고통이나 상처를 피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책의 저자인 이봉희씨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학 심리치료의 전문가. 독서를 통해 삶의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다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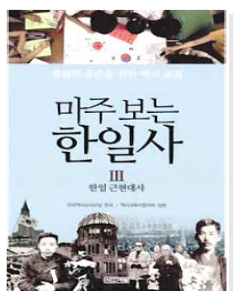


간송 전형필

(이충렬/김영사)

우리 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를 복원하고, 위창 오세창에서 월탄 박종화, 청전 이상범 등 당대 서화가와 문사들을 후원하며, 암흑의 식민지 조선에 탐미와 매혹의 근대예술을 꽃피운 간송 전형필. 그는 억만금 재산과 젊음을 바쳐 수장한 서화 전적, 골동품들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개인 박물관 간송미술관을 세웠다. 왜 간송은 문화재 수집에 억만금을 쏟아부었는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이 땅에 남긴 서화, 도자기, 불상, 석조물, 서적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세기의 보물 <훈민정음>, 고려청자의 백미로 꼽히는 ‘천학매병’, 겸재, 현재, 단원, 혜원, 오원, 추사 등 거장의 걸작 100점씩을 수집하기까지, 간송 전형필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평전이다.

- 인천역사교과연구회에서 먼저 읽었습니다.



마주 보는 한일사 3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일본역사교육자협의회 / 사계절)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사들이 함께 쓴 책으로 양국 간의 핫 이슈인 한일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탈에 맞선 한국 민중들이 저항과 싸움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전쟁과 제국주의에 맞선 일본 시민사회와 민중들의 운동과 저항을 기록하며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 휴머니스트)

2001년 일본의 위험한 교과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3국 역사학자가 만나 개항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3국의 역사를 관계사 중심으로 서술한 책이다. 이 책은 각국사의 한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얹혀 있는 근현대 동아시아사를 국제 관계사의 맥락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일국사를 넘는 역사 인식의 확대뿐 아니라 한국사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다.

또 다른 학교

얘들아, 우리 마을에서 놀고 배우자!

– 함께하는 배움터 ‘계산동 마을학교’로 오세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른들이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스스로 짚을 틈주고 자랄 수 있도록 기다리고 보살피며 북돋아 주는 어른과, 함께 놀며 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 옆으로 눈을 돌려보면 누구나 이런 이웃과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부모들은 경쟁과 불안이 점령한 환경 속에 아이들을 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미 우리의 마을은 아이들이 뻘뻘한 학습

일정표로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길이 되었으며, 끊임없이 소비하고 서로를 경계하는 공간이 된 지 오래되었다.

‘계산동 마을학교’는 아이와 함께 어른도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을을 상상하며 2014년 시작되었다. 사교육에 점령당하지 않고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방식을 꿈꾸며 마을 초등 아이들을 모았다. 그것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답사하는 ‘계양 어린이 역사탐험대’이다. 인근 중학교에 근무하는 역사 선생님과 공동육아협동조합 부모들이 실무를 맡고 “인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 재정을 충당하였다. 여러 나이의 이웃하는 아이들이 섞여 함께 전세버스 타고 답사 다니는 재미는 쏠쏠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관계들 또한 만들어졌다.

올해도 “계양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계산동 마을학교는 제2기를 맡게 되었다. 계산동에서 아이들을 더불어 함께 키우고자 하는 뜻을 가진 이들이 모여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다. ‘해맑은 공동육아협동조합’, ‘돌맹이국 도서관’, ‘참좋은두레생협’, ‘계산새마을금고’ 등 계산동에 뿌리를 둔 단체들과 개인들이 교육자원과 장소를 공유하며 마을학교를 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확대하여 놀이와 자연, 문화재에 대하여 함께 배우는 “놀자문 탐험대”와 학습이 아닌 순수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책과 노니는 아이들”로 나누어 활동한다. 마을의 교육자원이 모이고 이를 지원하는 현직 교사나 생태활동가, 독서운동가들이 모여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역

교육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 넘친다.

‘한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마을에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온 몸으로 느끼며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배울 수 없다면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해야 한다. 계산동 마을학교가 어린이에서 출발하지만 차후에는 어른들이 함께 모여 더 즐거운, 문화적 삶의 질을 넓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지도 모를 일이다.

최혜랑_인천효성동초등학교 교사,
계산동마을학교 운영진

(계산동마을학교 <http://cafe.daum.net/gye-history>)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강화도로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당시 막내는 갓 돌이 지난 갓난쟁이였고 첫째는 3학년, 둘째는 유치원을 잘 다니고 있던 때였다. 맞벌이 부부인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열심히 해내야 했다. 남편은 직장을 열심히 다녔고 나 또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은 늘 분주했고 내내 바빴으며 첫째 아이는 학교를 다녀온 후 학원을 전전하다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집으로 돌아왔다. 둘째와 막내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친구들도 모두 가고 없는 어린이집에서 야간 보육을 했다. 서로 얼굴 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채 일주일이 지났다.

주말이면 일주일 동안 애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엄마, 아빠 노릇을 해대느라 체험장이며 캠핑장, 전시관, 상영관을 코스처럼 돌아다니고 할 일은 했다는 위안으로 한 주를 마감하곤 했다.

첫째 아이가 3학년이 되고 5월쯤 학교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을 했다. 우리 동네는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라 초등학교가 많았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30여 명이나 되었다. 아이 공개수업을 보러 간 날, 아이가 어떤 수업을 했는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있던 책상과 좁은 통로만 보였다. 너무 답답하여 내

가숨을 못 쉴 지경이었다.

많은 아이 탓에 선생님과 교감하며 하루하루 보냈으면 하는 기대는 힘들어 보였다. 게다가 우리 아이가 그 많은 학생 속에서 들러리로만 지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방법을 찾아 나섰다. 어디서든 자신 있게 행동하라고 주문도 해보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도 해보고, 남에게 뒤쳐질까 남들이 하는 건 다 시켜도 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직장 선배로부터 강화도에 있는 초등학교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전교생이 20여 명 남짓인 학교로 도시에서 아이들이 많이 전학을 오는 학교란다. 전학을 시키기 전에 계절학교를 먼저 체험해 보면 우리 아이가 이 학교와 맞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로 계절학교를 신청했다.

5일간의 계절학교 기간 나는 인천 검단의 집에서 강화도 양도까지 아이를 실어 날랐다. 물론 5일 동안 강화도 안에서 숙식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에겐 두 명의 아이와 남편이 더 있었기에 왕복 4시간도 불사하고 아이를 시골학교 체험을 보낸 것이다. 그 동안 아이는 망둥이 낚시, 숲 체

험, 계곡에서의 물놀이, 순무 담기 등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많은 체험을 하면서 강력하게 전학을 요구했다. 나 역시 처음으로 아이의 풀어진 모습을 보며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란 생각에 전학을 강행했다.

남편의 왕복 80~90km에 이르는 출퇴근 길이 문제였지만 결국 작년에 강화로 모든 가족이 이사했다.

또 아이를 시골에서 키우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았다. ‘아이를 그렇게 싸고 키우면 안된다’, ‘나중에 아이가 크고 나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다’, ‘아이가 살아야 하는 세상은 치열한 정글이다.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등등.

하지만 나는 이 말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은 정글 속에 살아남아야 하는 사자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다. 시골에서 적은 아이들 속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 살면서 도시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뒤쳐지는 것도 아니다. 물론 수학, 영어 과외를 하거나 체육, 음악 개인지도를 받지 않지만 학교나 지역 사회 등에서 무료로 배울 기회는 많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도시에서 자랐다면 몰랐을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자양분이 될 것을 확신한다.

우리 부부는 여전히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있어서 온전한 강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강화와 서울을 오가며 보게 되는 사계절의 자연 변화를 보면서 반 농부가 되어간다.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작물이 마를 것을 걱정하고 천둥, 번개가 치는 장마철에는 작물이 쓰러질 것을 걱정하고, 황금 들판이 되는 가을이 오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섭리에 감사하게 된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풍경을 보고 자란다. 그 마음이 얼마나 넉넉할지 우리가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이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는 시간이면 나는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간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제일 먼저 오늘도 즐거웠냐고 묻는다. “네~~”라고 이야기하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잘재잘 이야기하는 아이들, ‘그래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너희 덕분에 시골 생활을 하게 되어 엄마도 행복하구나.’

신상미_학부모기자

자르는 선

냉장고에 붙여두고 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세요.



<공연>

공연명	일시	대상	내용	주관
퍼니스트쇼	7.18.	5세 이상	마술 · 마임 · 댄스 · 서커스 등의 예술 장르를 혼합한 공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라스페란자	8.22.	초등학생 이상	팝페라 콘서트	
이야기가 있는 마술공연	7.11.	유아, 초등학생	초등교사와 즐기는 이야기가 있는 마술쇼	중앙도서관

<행사>

행사명	일시	대상	내용	주관
여름플러스	7.9~8.28.	영유아 및 보호자	책으로 하는 체험을 통해 도서관과 친해져요.	연수도서관
북캉스 도서관여행	8.3.~8.6.	초등학생	책소풍 상상미술관, 편편 영화동화나라 등	서구도서관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	8월 중	초등 3학년~4학년	우리 동네 유적 찾기, 시낭송과 노래배우기 등	화도진도서관
여름발명특허교실	8.3.~8.7.	중학교 2학년	발명특강 및 아이디어로 발명품 만들기	부평도서관
도서관 다문화놀이터	8.4.~8.6. / 8.11.~8.14.	초등학생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이해 및 전통 체험	중앙도서관

<강좌>

강좌명	일시	내용	주관
2015 인문독서아카데미	7.6.~8.3.	매화를 찾아서 매화를 탐하다. - 강사 홍선웅 판화가	연수도서관
	8.10.~9.7.	생태적 삶과 철학, 지구는 영원히 우리의 것인가 - 강사 생태학자 박병상	
	7. 20.~8.17.	나의 서양사 편력 - 강사 박상의 교수	계양도서관
	7.13.~7.27	건국신화와 함께 하는 인문학 - 강사 백승종 교수	부평도서관
	8.12.~8.26.	과학을 만나다 - 강사 이은희 컬럼니스트	
길 위의 인문학	8.28.	발효음식 술과 초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 - 강사 허시명	주안도서관
	8.29.	충남 신평 양조장 견학 및 전통주 빚기 체험 - 강사 허시명	
(문화가 있는 날) 길에서 만난 찬란한 순간들	7.29.	'도전, 청춘의 여행'을 주제로 관련 영화와 책을 소개하고 해설 - 강사 광명동	주안도서관
	8.26.	'파리의 매력'을 주제로 책과 영화를 소개하고 해설 - 강사 광명동	

<전시>

전시명	일시	내용	주관
다양한 무척추 동물 두 번째 이야기 - 렌즈로 자연을 만나다.	7.27.~8.21.	생물표본 전시	인천평생학습관
교육역사기록 전시회 -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7.23.~ 8. 4.	운동회를 주제로 한 교육 사료 및 기록물 전시	연수도서관

<도서관 공통>

전시명	일시	내용	문의
2015년 제91회 여름독서교실	7.27.(월) ~ 7.31.(금)	도서관 이용법, 독후활동, 독서토론 등	도서관 열람봉사과 등

※ 메르스 등 도서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꼭 해당기관에 전화문의하세요.
※ 이외에도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기관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 문의 하세요.

- 학생교육문화회관 760-3433

• 평생학습관 899-1516

• 북구도서관 363-5012
- 중앙도서관 420-8422

• 부평도서관 510-7313

• 주안도서관 450-9139
- 화도진도서관 760-4122

• 서구도서관 585-7104

• 계양도서관 540-4452
- 연수도서관 899-7542

들어 올 돈은 줄고,
쓸 돈은 늘어나



지난해에 비해 이만큼 더 필요해요

- 교직원 인건비 증가분(3.8%) : 843억원
- 누리과정 증가분 : 320억원
- 무상급식 분담율 상향(30% → 46.7%) : 172억원
- 지방채원리금 상환 : 140억원

올해 수입은 이만큼 줄었어요

- 세수부족에 따른 교부금 감소 : 107억원
- 법정전입금 미전입 : 534억원
- 학교용지부담금 : 344억원

2015년 교육사업을 위해 1,474억원이 부족해요

- 인건비로 환산할 경우 1.5개월분
- 누리과정으로 환산할 경우 7.7개월분
- 학교기본운영비로 환산할 경우 6개월분

주먹 친 손을 펴면
서로 손잡을 수 있음을

혼자 저만치 앞서 가기보다
함께 손잡고 걷는 기쁨을

스마트폰의 촉감보다
고운 햇살, 작은 풀잎이
손끝에 닿는 느낌을

손가락 걸고 다짐한
너와 나 약속의 소중함을

2015년 인천교육
사람의 손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손을 배웁니다.